노원병 4·24 재보선 최대격전지 부상

여야 후보군 물밑 경쟁… 사활건 일전 불가피

노회찬 부인 출마… '지역구 세습' 논란도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의 귀국을 하루 앞두고 4·24 재보선 대전(大戰)의 막이 본격적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안 전 교수가 출마하는 서울 노원 병이 최대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선거 결과에 따라 야권 발(發) 정계개편 등 정치지형 자체가 요동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야 모두 벌써부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더욱이 이번 재보선이 노원병과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전국 단위로 확산된데다 야권에서 이제 막 출범한 '박근혜 정부' 초반 평가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 여야 간 사활을 건 일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집권 초반 선거라는 점에서 승산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면서도 정권 출범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대통령보다 낮다는 점에서 긴장감을 감추지 않고 있다.

정부조직법을 고리로 박 대통령과 각을 세우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재보선 승리를 통해 현 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재보선 지역 3곳 중 최대 격전지는 노원병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안 전 교수의 출마로 선거 구도가 단순한 여야 대결을 넘어 복잡한 구도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에선 현 당협위원장인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이미 지난달 21일 선관위 예비후보등록을 마친 뒤 20일 가까이 표밭 다지기를 하고 있다.

당 일각에선 '젊은 피'로 불리는 이준석 전 비상대책위원을 투입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공심위 내부에선 부정적 여론이 더 큰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안 전 교수의 출마로 노원병 선거 구도가 혼돈에 빠졌다. 민주당에선 이동섭 지역위원장이 일찌감치 당 예비자격심사위의 심사를 통과했으나 최종 공천 여부는 안 전 교수 귀국 이후로 미뤄졌다.

진보정의당은 노회찬 공동대표가 '억울하게' 잃은 지역구에 안 전 교수가 출마하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다고 불쾌해하며 노 공동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씨를 전략 공천했다. 김지선씨는 10일 출마 기자회견에서 "새 얼굴이 새 정치인가, 국회의원 수를 줄이는 것이 새 정치인가"라고 반문한 뒤 "이번 선거는 거대권력에 대한 국민심판의 의미가 큰 만큼 안 전 교수에게 양보해 달라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지역구 세습' 논란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도 독자후보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부산 영도에는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을 맡아 대선 승리의 일등공신으로 꼽히는 4선 출신 김무성 전 의원이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아직 다른 후보군은 보이지 않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김비오 지역위원장의 출마 가능성이 거론되나 부산·경남(PK) 출신 중량급 인사의 차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충남 부여·청양은 후보군이 가장 난립해 있는 곳이다. 새누리당에서 이완구 전 충남지사와 이진삼 전 자유선진당 의원, 박종선 전 육사 교장, 홍표근 전 충남도의원, 김홍조 전 한나라당 부여지구당위원장,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영애 전 새누리당 의원, 박남신 한국승마방송 대표 등 8명이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민주당에선 정용환 변호사가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민주 당권도전 나선 이용섭 의원 인터뷰

"당 변화 주도할 혁신 리더 필요"

나는 친노… 부끄럽지 않아

친노패권주의는 동의 못해

호남 지지 회복 급선무

노원병 제1야당 후보내야

오는 5월 전당대회에서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에 참여키로 선언한 이용섭 의원은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무모한 도전이라는 일각의 시선에도 "공식 출마선언 이후 분위기가 한층 좋아지고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일찌감치 전국을 돌며 경선전에 돌입한 이 의원을 지난 8일 밤 광주에서 만났다. 인터뷰 내용을 요약했다.

-재선으로 당 대표 경선에 나서는 것은 쉽지 않은 도전이다. 출마의 가장 큰 이유는.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당대표는 정치를 오래 한 거물급 정치인이 아니라 민주당을 혁신할 수 있는 혁신적 리더다. 정치경험이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새로운 시각으로 당의 변화를 주도할 수 있다.

-이 의원이 '친노'(친노무현)냐 아니냐를 놓고 논란이 있다.

▲내가 정치를 시작한 직접적 계기는 2007년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자 정권교체를 이뤄야겠다는 사명감 때문이었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영향이 컸다. 그런 점에서 나는 분명 친노이고 친노인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얘기하는 친노는 계파개념과는 다르다. 또한 친노패권주의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 친노패권주의는 노무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것이며 노무현 정신과 부합하지 않는다.

-호남 의원들의 지지성향이 나눠지는 분위기다. 이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나.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이 송두리째 흔들리고 있다. 안철수 신당이 출현하면 민주당은 호남에서 매우 어려워질 수 있다. 민주당에 대한 호남의 지지를 빨리 회복하고 그 힘을 동력으로 전국에 에너지를 공급해야 민주당이 다시 뛸 수 있다. 그러려면 이번에는 호남 지지를 전국으로 확장할 수 있는 당대표가 나와야 한다. 이에 호남 의원들이 대체로 동의한다. 그러나 극히 일부 의원들은 여전히 '사돈이 논 사면 배가 아프다'는 분열적 생각을 하는듯하다. 이해한다. 지역민이 평가할 것이다.

-총선에 이어 대선 패배를 놓고 친노세력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대선평가위원회에서 대선평가 분석을 하고 있다. 3월말께 결과가 나올 것이다. 평가결과가 나오면 책임질 사람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해야 책임정치가 실현된다.

-당 대표 도전이 광주시장 도전을 위한 전 단계라는 의혹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호남인들이 피와 땀, 눈물로 키운 민주당이 백척간두의 위기에 처해 있고 이러한 민주당을 혁신하겠다고 힘든 선택을 한 사람의 진실성을 너무 왜곡한 것 같다. 지금은 60년 전통의 민주당을 재건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를 써보고 싶은 생각뿐이다.

-안철수 전 서울대 교수가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 출마한다고 한다. 민주당은 후보를 내야 하는지.

▲안 전 교수가 현재처럼 민주당을 포함하여 야권과 일체의 상의 없이 일방적 행보를 계속한다면 민주당도 제1야당으로서 당당하게 후보를 내고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가 표류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국회의 고유권한인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에까지 '감놔라. 배 놔라' 참견해서는 안 된다. 국회도 청와대 못지않게 국민을 생각하고 국가발전을 걱정한다. 새누리당은 청와대에 흔들리지 말고 원칙과 소신을 가져야 한다. 민주당도 협상막판 '말 뒤집기'로 신뢰에 금이 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도 11~26일 새정부 출범이후 첫 정부 합동감사

전남도가 새 정부 출범 이후 지자체로서는 처음으로 11~26일 정부 합동감사를 받는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안전행정부를 주관으로 환경, 소방방재 등 정부 13개 부처 45명이 참여하는 정부합동감사를 받는다.

11일부터 20일까지는 감사 요원 18명이 투입된 사전감사가 이뤄지며 재난과 안전 분야, 공직기강, 농림사업 보조금 집행, 민생 예산 등이 중점 대상이다.

특히 여수와 완도 등 일부 지역에서 거액의 공금 횡령 사건이 발생, 공금 관리실태와 공직기강 분야에도 폭넓은 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2010년 4월 시행된 전남도와 22개 시·군에 대한 당시 행정안전부 감사에서 일반행정과 도시건축, 소방 등 185건이 지적됐었다.

/오광록기자 kroh@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9일 오후 광주여성대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금남로와 충장로 일대에서 가두행진을 하며 '빈곤과 폭력 추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빛가람혁신도시 기반시설 공정률 최하위

진입도로·상수도 등 85%로 전국 10곳중 9번째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시 금천면·이하 빛가람혁신도시)의 진입도로·상수도 등 기반시설 공사 진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감사원은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 자료를 통해 "빛가람혁신도시 기반시설 공사가 늦어지고 있고, 도로와 주택 공급 등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빛가람혁신도시에 진입도로, 상하수도, 폐기물처리시설, 전력시설 등을 공급하는 기반시설공사의 진행률은 85.5%로 전국 10개 혁신 도시 중 경남(76%)에 이어 9번째로 늦다. 반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북, 경북 등지의 혁신도시는 기반시설공사를 모두 완료했다.

이번 감사 결과, 빛가람혁신도시의 도로와 주택 공급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이곳에는 나주역~혁신도시, 신천IC~고동리, 혁신도시 북쪽~국도1호선, 혁신도시 동쪽~국가지원 지방도 55호선 등 4개의 진입도로가 건설되고 있지만 신천IC~고동리는 용지보상을 마치지 못했고 혁신도시 북쪽~국도1호선은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했다. 또 남은 2개의 진입도로 공정률도 11~65%에 그치고 있다.

또 빛가람혁신도시에 1만6931가구의 주택을 공급해야 하지만 7156가구(43%)만이 착공됐고, 이마저도 오는 2014년 2월에야 입주할 수 있는 상태다.

한편 전국적으로도 이전 대상 공공기관 가운데 3.5%만 이전을 완료하는 등 사업이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영암 F1경주장 연 가동률 90%

슈퍼 GT 코리아·KMF 챔피언십 등 24개 열려

F1 코리아 그랑프리가 열리는 영암 서킷에서 세계 3대 상용차대회인 슈퍼 GT(grand touring)를 비롯해 다양한 모터스포츠대회가 펼쳐진다.

F1 조직위는 10일 "오는 4월 7일 국내 최대 바이크대회인 'KMF(대한모터사이클연맹) 코리아 로드레이스 챔피언십'이 열리는 것을 시작으로 올해 24개 대회가 영암 서킷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올해 국내에서 열리는 모터스포츠 대회 28개 대회 중 해외에서 진행되는 대회와 태백 경주장에서 열리는 1개 대회를 제외하고는 모두 영암 F1 경주장에서 개최된다.

5월 18~19일 열리는 '2013 SUPER GT ALL-STAR 대회(슈퍼 GT 코리아)'는 유럽 중심의 FIA(국제자동차연맹) GT, 독일 중심의 DTM(독일 투어링카 마스터즈)과 더불어 세계 3대 양산차 대회로 F1과 다른 또 다른 재미를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슈퍼 GT 코리아'는 7만여 명의 관람객이 예상돼 F1대회와 함께 전남을 세계에 알리는 또 하나의 대규모 행사가 될 전망이다.

F1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경주장 예약은 현재 200일 이상 완료된 상태로 12월부터 2월까지의 겨울철과 여름 장마철, 트랙 유지보수 등에 필요한 기간을 제외하면 실질 가동률 90%에 달한다"고 밝혔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삼희공인중개사

■상가건물전문■

◈10억부터 50억 이상◈

급매물 본사 당일계약!

◈경매 진행 중 부동산◈

(취하 및 매입가능)

◈상속부동산/지분물건◈

(즉시 매입가능)

매 매

* 두암동 두암타운 사거리 대로변 6층건물 대지507제곱미터(153평) 건2180(660평) 6층주택(48평)대출금(10억) 매매가22억 보4억3500만/월1390만/실투자금7억7천 실수익률 연13.8%
* 경기도화성시 삼성전자 인근 대1743제곱미터(527평)감정40억/ 매매가27억 수익률 00%

임 대

* 서구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1층 대로변 보3억/ 월2200만 건330제곱미터(100평)
* 서구 치평동 이마트 인근 4층 사무실 보1억/월350만 건494.49제곱미터(149평)
* 북구 문흥동 대로변 4층 건727제곱미터 (220평) 보1억/ 월500만 매매가 6억5천만

상가 투자자, 매수자 상담환영

법률/금융상담/ 동구 불로동 삼희빌딩 3층

☎234-1199/010-8730-3340

신뢰할 안내자를 만나면 인생이 즐겁습니다.

금당 공인중개사

매매·교환·개발등의 물건을 접수합니다.

감정가 이하물건

• 금남로5가 대지 265㎡(80)건평990㎡(300)감정17억 선 5층 건물 매도 10억2천
• 시설완비된 한방병원 신안동 대지 645㎡(194) 6층 건물 1230㎡(372) 감정 14억 은행 8억3천 매도12억4천
• 대인동 소방서 4거리 대지 649㎡(210) 건평 158평 공시지가 11억7천 매도12억
• 서방시장 4거리 대지 1182㎡(356) 건평 2850㎡(867) 병원·요양시설 적합 공시가 23억4천 매도 19억
• 중흥 동 대지 301㎡(91) 건평 1124㎡(340평)대출4억5천 보증금 5천 월730만원 매도7천만원

건물매도

• 전원주택 담양 금성면 대지 910㎡(275) 2층주택 174㎡(52) 대출5천 매도 1억4500
• 광주역앞 대지 357㎡(108)건평 1294㎡(397) 원룸6 투룸17 대출3억 보증금 8천에 월400선 매도 7억
• 북구 우산동 대지 330㎡(100)건평 1366㎡(412) 대출6억 보증금 8천에 월 900선 매도 10억
• 봉황면 천천리 땅 2546㎡(770)주택 102㎡(31) 전원생활적합 아파트나 주택과 교환가능 1억6천
• 신안동 모텔 대지 364㎡(110) 건평885㎡(268) 대출6억9천 매도8억천만원

나대지

• 별장용주택 순창군 희문산 땅 1310㎡(396)1억5천
• 화순군 도곡면 원화리 1300㎡(400) 가든등 다용도 사용 교환가능 2억8천
• 화정역 인근 대지 1105㎡(334)오피스텔 생활주택 적합 대출1억 매도 17억3천
• 북동 상업지 992㎡(300)원룸 등 적합 7억8천
• 금곡동 답1950㎡(590) 대출 3천 매도 4백
• 담양군 대덕면 계획관리지역 8513㎡(2587)공장등 적합 대출 1억6천 매도2억4천
• 보성군 율어면 대지,전,답, 임야 660000㎡(199650)대형농장 종교시설등 적합 16억

☎222-4994. 010-2632-5659.

금남로5가 광주고용센터 옆

다와부동산 재테크컨설팅

㈜다와옥션컨설팅부, 매수신청대리업체(법원인가)

입찰에서 명도, 등기, 양도신고까지(무료상담)

상가주택

▷북구 신안동 상업지역 6층의료시설 대지1026㎡ 건평 2890㎡ 감정가29억
▷무안군 망운면 관리지역 3층펜션시설 대지850㎡ 건평 1146㎡ 감정가11억 최저가4억

단독주택

▷동구 내남동 2층전원주택 대지952㎡ 건평203㎡ 감정가4억3천만 최저가3억
▷무안군 현경면 단독주택 대지660㎡ 건평96㎡ 감정가1억3천만 최저가1억

공장및창고

▷광산구 안청동 하남산단내2층공장 토지5940㎡ 건물 6532㎡ 감정가36억 최저가25억
▷함평읍 장교리 관리지역 양어장및공장 토지14792㎡ 건물4292㎡ 감정가27억 최저가19억
▷광산구 월전동 평동산단 일반공업2층공장 토지 5289㎡ 건물3587㎡감정가26억 최저가15억
▷나주시 공산면 3층공장 토지29710㎡ 건물1826㎡ 감정가17억3천 최저가8억8천만

토지매매

▷화순읍 유천리 자연녹지 답 2007㎡ 감정가3억4천만 최저가2억3천만
▷담양군 담양읍 상업지역 대지811㎡ 감정가2억2천만 최저가1억4천만
▷동구 내남동 1종주거 전원주택부지 주거환경최상 대지750㎡

☎ 문의 010-4911-4989

(팩스 062-226-3607)

최기철 공인중개사 사무소

*매매 또는 교환물건 우선 접수 중!!

*10억~100억 이상의 건물 급구함!!

=상가 및 사우나(매매)=

* 상무지구 사우나 현성업중 최고의 수익률 보장(급매)
* 남구 진월동 국제호텔부근 상가건물 대지 약600평 건평 1000평
* 상무지구 중심지역의 상가빌딩 대지 173평 건평 1.172평
* 상무지구 메인도로 대형빌딩 대지 1.058평 건평 4.295평
* 서구 광천 터미널부근 건물 대지 850평 대지 2.620평 (모든건물 공실없음, 임대수익 보장)
* 기타 외 현성업중인 건물 다량보유

= 토지매매 및 분양=

* 황금노을의 명소, 서해바다 부안군 곰소에 펜션타운부지, 전원주택부지, 한옥마을 부지를 300~500평단위로 분양합니다.
* 무안군 청매리 지도방향 바닷가부근 최상의 전원주택 부지적합 대지 2.340평
* 광양읍 덕례리 대지 2.800평
* 나주시 금천면 원곡 대지3.200평
* 광산구 송정역부근 대지 1.150평
* 상무지구 중심지역 대지 약 1.000평 (각 타지역의 토지 또한 대량 보유하고 있음)
* 전화접수 후 내방하시면 친절상담환영

☎ 956-6660 / 010-2139-6255

FAX. 956-6608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토지(매매)

중심상업지역

▶나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1002㎡ 매매가 21억8천
※ 위토지 현재시점 건축 및 분양적합
▶나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1200㎡ 매매가 25억7천만
※ 위 토지 현재시점 건축 및 분양적합
▶나주혁신도시 중심상업지역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1096㎡ 매매가 24억
※위 토지 현재시점 건축 및 분양적합

근린생활용지

▶나주혁신도시 근린생활용지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640㎡ 매매가 16억5천만

전용주거지역

▶나주혁신도시 협의택지(주거전용)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270㎡ 매매가 1억8백만

점포주택용지

▶나주혁신도시 이주자택지(점포주택) 택지개발지구 내 대지 284㎡ 매매가 2억8천5백만

가든

▶전남 장흥군 관산읍 대지991㎡ 임야 2314㎡ 건평 132.2㎡
※천관산도립공원 자연휴양림 초입지로 한옥으로 건축됨.(개인사정으로 매매) 매매가3억원

나주택지개발지구 인근 토지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답 66.116㎡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예정(5월) 혁신도시 메인도로에서 시청가는 길목위치

대한공인중개사 사무소

010-8611-9009

(건축·분양대행·시행 상담)

상무랜드공인중개사

토 지(매매)

• 용 도 •

전원주택, 과수원 연수원, 절, 한옥마을 등

• 면 적 •

16.789평방미터(약5.078평)

• 위 치 •

백암산 남측(장성호위)

• 대표지번 •

장성군 북하면 쌍웅리7-14번지에17필지

• 매각금액 •

5억5천만 원

■설 명■

위 토지 는 장성 백암산남쪽 아래로 5,078평 전부가 사용가능한 토지로서 좌청룡 우백호의 지형을 완벽히 갖추고 있는 땅으로 본토지에서 남쪽으로 장성호가 내려다보이며 본토지의 좌우로 계곡이 흐르고 있습니다. 5, 6년 전 이미 토지의 토목작업이 다 되어 있었으나 지금은 다소 잡초가 우거진 상태입니다.

1. 본토지 는 한옥마을로 적합하며
2. 또한 전원 농장을 겸한 가족묘지
3. 오염원이 전혀 없는 과수원
4. 조용한 절,기도원
5. 회사의 연수원등으로 적합합니다.

진입로가 다소 협소하나 1톤트럭은 마음대로 가능함

본토지는 당 중개업소에서 전속으로 중개하고 있습니다.

맞춤주문 받습니다.
원하시는 물건 찾아 드리며,
정리하실 물건
팔아드리겠습니다.
★아무때나 전화 주십시오★

☎(FAX)383-5221

핸 010-3609-5221

동원공인중개사 (상무지구 전문)

■상가건물■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보.5억4천.월3500만 매46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보3억, 월2500만원 매39억원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보3억원, 월1200만원 매23억원
* 광산구 수완지구 보3억8천, 월1390만 매24억원

■대지/답■

* 상무지구 중심상업지 960㎡ 매 36억원
* 치평동 광송간도로 395㎡ 매14억원
* 마륵동생산녹지 도로접 895㎡ 매가10억원

■세종시 상업지■

* 세종시 상업지 1480㎡ 매78억원
* 세종시 상업지 1155㎡ 매42억원
* 세종시 1층상가 165㎡ 매11억원

상가건물

건물가능 나대지 급구

☎062-381-6001

010-3753-0033